

(7) ④신천본향① (성산면 신천리)

<선씨일월>

아바님은 선씨
어머님은 고씨.
금몸으로 무이동조
예궁애기 솟아나.
흔 시술에 죽어,
일곱술에 돌아탄싱.
열다섯에 대천급 저울연.
상여 오라방 서월 상경,
과거 진상 가고 오단.
패란 바당에
모진 광풍에 낙성되여.
부름소리 웜소리
밤인 금정지
낮인 옥정지
선씨애기 열아홉술에
“나는 살아 뭣하리요.”
호연,
연뒤 알로 똑기 채여
죽어,
앞 골챙이에
천년 대 만년 대 무었수다.
기미년 육석돌 열나흘날
망명도주 짐씨 선싱 불러
안초공 밧초공
안이공 밧이공 일고
으뜸 상대제비 일고
으뜸 중대제비
놀래와치 풍내와치
박씨 화정 강씨 할망
육간제비,
삼명뒤발 거느리던
토조관.
신남 밑디

장대, 월대, 수령대 무어
만민단궐
선씨 상단궐, 고씨 상단궐,
박씨 하정 강씨 할망
육관제비 삼명뒤발.
요왕 영개
몸받은 토조관님.
유월 초으드레
만민단궐에 제민 받곡.
예레드레 만민단궐에
제민 받곡
쑤무으드레 만민단궐에
제민 받곡.

제일 6월 8일, 18일, 28일,

<표선면 표선리 여무 48세 고옥순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446.

(7) ④신천본향② (성산면 신천리)
<선씨일월당>

선씨일월 고씨일월
금몸으로 무후호와.
예궁애기 탄싱호여, 혼 시술에 죽어
일곱술에 돌아탄싱.
열다섯에 대천급을 저울려,
열아홉에 연뒤 가름 상추에
밤인 금정지 낮인 옥정지
삼천군병 채여근
연뒤 알로 떨어져
앞골챙이 천년 대 묻고
상예 오라방 서월 상경
각서 군문진수 가고
오다가 편안 바당
모진 광풍에 낙성하여
부름소리 웬소리
선씨 상단골, 고씨 상단골.

기미년 육섯들 열나흘날
망명 도주.
짐씨 선싱 불러다가
신남밭디 당설련했습네다.

제일 매둘 8일,
6월 8일, 18일, 28일 만민단궐에 대제일.

<표선면 표선리 남무 68세 신명근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446-447.

(7) ④신천본향③(성산면 신천리)

<선씨일월>

옛 선씨 즈손.
신하천리,
선씨가
양반의 집이라.
뜰이 혼나 낫는다.
시술에 빙이 들고
죽억살악 혼다가
일곱술에 살아나고,
또, 열다섯 시오세에
신뱅이 들어,
또, 죽억살악 혼여,
예레듭, 열아홉술에
살아나니.
오라바님 성제는
누이 동싱을 보니.
“아무리 해여도
느만 살아나라.
우리 양반의 집을 풀아도
흘 수 읍다.
느가 심방질만 혼댕 혼민
느의 입성을
우리 성제가 독배를 잡아도
육지를 가
헤여당 입질 테이니.

내 동상만
 하나만 살아나라.” 하여,
이제는
 오라방들은 육지로 가
 이복 기지를 해연
 제주바당,
 성산면 신천 မ을을
 곧 당하게 되니.
 광풍 부름이 일어나.
 배는 파산이 되고
 오라방들 성제는
 바당이서 시상을 부리고.
이제는 선씨 일월은
 “나는 살아 뭘 허리요.” 해서.
 바당물에 빠져 죽어.
이제는
 신천리선 물을 질레 갔다가
 보니.
 선씨일월은 죽어시니.
 그 부락에 오고,
 “선씨일월이 죽었습네다.” 하니.
 부락에서
 “건져 오라.” 하여
 선씨일월을 건져다가
 신남밭디 묘를 서립 하여.
 선씨일월은 죽어서도
 신하천미 굿을 허쟁 허민,
 공씨상을 퉁로 출리고
 선씨일월 나시로,
 훈녁으론 일월로 놀고,
 훈녁으론 심방으로 놀았습네다.

제일 없음

<조천면 신촌리 남무 59세 정두삼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447-448.